

최치원 설화의 형성

현 승 환 *

目 次

1. 서 론
2. 실존인물의 설화화
3. 설화의 양상
4. 설화의 발상지
5. 원형설화
6. 마무리

1. 서 론

고운 최치원은 통일신라 말기의 대문장가로 삼국사기 열전에 이미 그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전승되던 설화는 조선조에 와서 소설로 정착하는 등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史實이 굴절 와전되어 재창조되어지는 현상은 양사언¹⁾이나 강감찬²⁾이 설화화 되는 것과 대등소이다. 이러한 실존 인물이 설화화되는 경우는 傳記的 사실과 설화들이 융해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본래부터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설화가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에 전승되는 다른 설화의 차용, 변이를 통해 실존 인물의 전기적 사실, 역사적 사실 등과 결부됨으로써 한 인물의 전설로 살아남게 된다.

또한 설화의 발생은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비슷한 문화 생활을 영

* 문학박사, 고전문학.

1) 계서야담 권1, 동국대, 전집1, pp.55-59.

2) 손진태는 「姜邯贊禁蛙喧傳説」이라 하여 “근세인의 소작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설화가 唐의 李延壽의 <南史> 三十 「沈僧昭傳」, 明 陶宗儀撰 <南村輟耕錄> 卷二 「懷孟蛙」의 내용과 유사한 '중국영향의 민중설화'라고 분류하였다.

위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한 곳에서 발생하여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발생한다 하여도 그 설화들은 서로 충돌함으로써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의 창작인 설화일지라도 발생과 전파는 이루어지게 된다.

이 논문은 실존 인물 최치원이 설화화된 양상을 살피고, 어디에서 발생하여 전파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인물이 설화화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고, 전파 경로를 고구함으로써 문학 연구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구비전승되는 최치원 설화가 최치원전으로 정착되는 설화의 소설화 과정도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빌헬름 그림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관심을 갖고 설화 연구를 시도했다. 첫째 어떻게 설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설화의 원형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설화의 기원 문제, 둘째 설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해석의 문제, 셋째 하나의 설화가 어떤 루트를 따라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전파의 문제, 넷째 같은 내용의 설화라도 각각 변형이 생기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점은 왜 생기는가 하는 변형의 문제, 다섯째 민담과 신화, 전설, 영웅담 등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역사지리학적 방법이 적당하다. 설화의 기원에 관심을 두어 설화는 어느 한 시기에 한 자리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유형마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것은 설화의 전파를 중요시하면서 전파는 문헌을 매개로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구승에 의하여 전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유형의 설화를 택해 가능한 모든 구승 및 문헌상 유희를 수집하고, 그것을 특징에 따라 분석하여 공통적 특징을 추출, 원형(Archetype)이란 것을 추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그리고 원형과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에서 주로 발견되는가에 따라 그 유형 발생의 지역과 시기를 판단하고 원형으로부터 현재의 각 유희에 이르기까지의 변이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설화가 전승자의 창의성이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원형의 재구가 무리이고³⁾ 원형이 가장 완전하리라는 생각은 퇴화를 전제한 잘못된 가정이라는 점에서⁴⁾ 약점

3) C.W von Sydow, *Folktales Studies and Philology (Selected papers on folklore)* (Copenhagen, 1948). 金烈圭 外, 『民譚學概論』, 一潮閣, 1982, p. 82 재인용.

4) Alan Dundes, *The Devolutionary Premise in Folklore Theory*, *Journal of Folklore Institute*, vol. 6, Non. 1(Hague, 1969). 위의 책, p. 82. 재인용.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설화의 원형을 찾고 그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변화라는 것은 사유나 공상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 類話를 비교하고, 원형을 찾는 것은 설화 연구에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설화의 전과론을 확립시키고 실증적인 논거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큰 업적이다.

최치원 설화를 연구함에 있어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최치원에 관계된 설화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시키려 한다. 최치원에 관한 설화는 이것 외에도 상당한 자료가 있다. 하지만 어떤 윤색이 가해지지 않고 살아있는 설화로는 『대계』의 것 이상의 것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의 구연상황에 따른 설화의 원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있다.

2. 실존인물의 설화화

최치원은 신라말기 현강왕대에서 효공왕대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이 때는 중대⁵⁾의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귀족연합적인 색채를 띤 지방 호족들의 잦은 왕위쟁탈로 인해 혼란한 시기였다. 특히 최치원이 살았던 때는 신라 쇠퇴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던 진성왕대로, 당에서 배운 그의 학식과 경륜을 펴볼 수 없는 불운한 시기였다.

하대의 특성인 사회 혼란이 빈발하게 된 원인으로는 골품귀족의 지배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점과⁶⁾ 兵部令을 둘러싼 귀족간의 끊임없는 권력항쟁이 있었고⁷⁾ 사상적인 측면에선 불교사상의 광범한 보급과 이해에 따라 빈민이나 노비도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는 등 개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심화되어졌다는 점⁸⁾ 그리고 비지역적인 보편적 차원의 정치사상으로서 유교정치이념이 신라 지식인들에게 새 시대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움직임과 변하는 계급질서를 해체시켜 나갔고, 이러한 지식인들

5) 삼국사기 시대구분에 의하면 신라건국부터 28대 진덕왕까지를 上代, 29대 태종부터 36대 혜공왕까지를 中代, 37대 선덕왕부터 56대 경순왕까지를 下代로 나눈다.

6) 丁仲煥, 『高麗建國考』, 『東亞論叢』 3輯, 동아대학교, 1966, p.97

7) 申澧植, 『新羅兵部令考』, 『歷史學報』, 역사학회, 1974, p.98.

8) 安啓賢, 『韓國佛敎史(上)』, 『韓國文化史大系』 11, 宗教哲學(上),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pp.244-250.

이 호족 혹은 낙향한 귀족세력과 결합하여 반신라적 색채를 띠게 됨으로써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파악되고 있다.⁹⁾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신라는 진성왕을 고비로 신라왕정이 쇠망의 길로 기울어져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은 반란의 양상과 규모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¹⁰⁾

진성왕 이후의 신라본기 기사에는 반란의 기사가 주축이 되어 있고, 그 반란의 주동역할은 고구려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궁예와 백제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견훤이었던 것이다. 진성왕대에 난이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가 진성왕의 변태적인 작위와 기강의 문란에 있음도 지적되고 있지만¹¹⁾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진성왕 이전의 신라 진골사회가 분열을 일으켜 잦은 왕위쟁탈을 유발하였고, 결국은 이것이 자체의 권력을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동인이 되어 골품제를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던 왕실자체의 무력화를 촉진시키게 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혼란을 틈타서 지방의 유력한 토착세력이나 낙향귀족은 세력확장을 꾀하는데 반하여 왕실은 자체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정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전국적인 도적봉기로 비화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이러한 가운데서 최치원은 時務十餘條를 올려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극복하려 했으나 진골계층의 반대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은 국가를 위한 충성을 내세웠기에 후대에 와서 그는 하나의 영웅적인 인간상으로 부각되게 되었고 설화적 인물로 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제주의 아기장수 설화가 한국본토에 비하여 불모의 땅이며 폐쇄된 사회라는 불리한 여건¹³⁾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한 주민들의 의도와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어떤 영웅적 인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적 욕구로 인해 생겨난 것과 같은 것이다. 최치원은 이와 같은 후대 민중의 심적 욕구로 인해 설화화 되어 나갔다고 생각한다.

9) 신형식, 「신라왕위 계승고」, 『유홍열박사화갑기념논총』, 1977. 참조

10) 진성왕대부터 효공왕 10년까지의 삼국사기의 기록 중 반란기사를 뽑아보면 알 수 있다. 최경숙은 「최치원연구」(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0)에서 위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11)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진성왕 2년조

12) 최경숙, 앞의 논문, p.4

13) 현길연,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17:18집, 한국언어학회, 1979, pp.289-306.

3. 설화의 양상

1) 설화의 유형과 분포

최치원은 민족적 영웅을 갈구하는 향유층들의 뜻과 일치됨으로써 설화화 되어 되었다면 어떤 유형의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는 하나의 기준되는 이야기 있고 그것이 전승되는 동안에 변이과정을 거쳐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사고의 결과 이루어진다. 韓碩洙는 『최치원전승의 연구』에서 최치원전이 여러 전래 설화와 사실적 요소를 합하여 형성된 뒤 이것을 읽은 독자에 의해 탄생, 기아, 교문, 혼사삽화를 핵심으로 한 설화가 형성되어지고 최치원 설화는 그 나름의 생존법칙에 의해 다양한 변이를 겪으며 전승되어진 것이라고 하였다.¹⁴⁾ 하지만 이러한 단정은 기록문학을 우선하는 것으로 일부 요소에는 적용되었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필자의 견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치원에 관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었는데 소설 창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승되는 설화들을 결합하여 소설화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고소설은 한글, 한문본으로 무려 15종이나 있다.¹⁵⁾ 이 중에서 필자는 김기동본을 중심으로 설화와 화소를 대비하려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최치원 설화를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뽑아 모아 이야기 내용이 거의 소설과 흡사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향유되는 이야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전승되는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눠보기 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운의 아버지가 고을 원에 재수되나, 그곳 원의 아내를 잃는 변괴가 있음을 듣고 근심하다.
- (2) 부친이 고을 원으로 부임하니 변괴가 생기고, 그의 아내의 종적이 묘연해 지다.
- (3) 아내에게 매어 놓았던 실을 좇아가 아내의 종적을 알다.

14) 한석수, 『최치원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1989.

15) 한석수, 위의 책, p.46 참조

- (4) 아내의 지혜로써 사슴가죽을 이용하여 金猪(금돼지)를 죽이고 전임 원의 부인들과 함께 돌아오다.
- (5) 아내가 아이를 낳다.
- (6) 부친이 금돼지의 자식이라 의심하여 버리다.
- (7) 하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 天女(선녀) 또는 학을 보내어 기르다.
- (8) 아버지를 찾겠다고 가출하다.
- (9) 아이를 위하여 樓臺를 지어 주다.
- (10) 天儒가 글을 가르치다.
- (11) 중원 황제가 학사를 보내다.
- (12) 詩文 경합 후 패배하여 학사 귀국하다.
- (13)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 羅丞相의 딸이 자색과 절행이 있음을 듣고 거짓으로 繕鏡賣라 하며 나승상댁에 이르러, 그 딸의 거울을 고의로 깨뜨리고 그 댁의 종(파경노)이 되다.
- (14) 황제가 석함에 계란을 넣어 알아 맞추는 글을 지어 보내라 하다.
- (15) 파경노에게 말을 기르게 하다가 화원을 가꾸도록 하다.
- (16) 마침내 조정에서 석함에 담긴 계란을 나승상(파경노 주인)에게 맡기다.
- (17)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며 사위로 삼을 것을 요구하다.
- (A) 승상 거절하다.
- (B) 딸이 효성을 빙자하여 다시 사위 삼을 것을 요구하자 승상 허락하다.
- (18) 아내를 맞이한 후 시를 지어 중원으로 보내다.
- (19) 중원의 황제가 그 시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시 지은 사람을 불러들이라 하다.
- (20) 신라 왕계 알현한 후 차칭 신라 문장 최치원이라 하며 중원을 향하여 發行하다.
- (21) 주민들의 간청에 의해 비를 내리게 하다.
- (22) 신인들로부터 장차 닥칠 禍와 그 대응책을 듣다.
- (23) 황제가 최치원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유인하다.
- (24) 최치원이 피와 부서로써 무사히 황제 앞에 이르다.
- (25) 최치원이 장원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다.
- (26) 중원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가다.
- (27) 황제가 다시 최치원을 부르다.
- (28) 최치원 귀국하다.
- (29) 최치원이 가야산에 들어가 종적을 모르게 되다.
- (30) 증거물으로써 최치원의 지팡이가 자라고 있다.
- (31) 최씨의 시조가 되다.
- (32) 중국이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않게 되다.
- (33) 중국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다.
- (34) 죽어서도 후손을 돌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최치원의 생애는 1. 입당이전의 성장기 2. 입당 활동기 3. 귀

국후의 활동과 입산으로 나누어진다.¹⁶⁾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생애를 탄생기, 성장기, 입당기, 종세기로 나누고, 채록된 설화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 설화들의 화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최고운과 최치원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 자료 번호는 부록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를 뜻하며, A, B는 설화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며 최고운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표1>의 분포 현상을 분석·설명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설화는 첫째, 원래 처음부터 설화로 구전되는 경우, 둘째, 기록문학이 설화화되어 구전되는 경우, 셋째, 처음에는 설화로 구전되다가 그것이 기록문학으로 정착되고 다시 설화화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신화처럼 처음부터 구전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물전설인 최치원설화는 첫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위 표를 보면 탄생을 설명하는 화소 7) <하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 천녀 또는 학을 보내어 기르다> 부분까지의 분포는 밀집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화소 8) <아버지를 찾겠다고 가출하다>, 화소 9) <아이를 위하여 樓臺를 지어주다>, 화소 10) <天儒가 글을 가르치다>, 화소 11) <중원 황제가 학사를 보내다>, 화소 12) <시문 경합 후 패배하여 학사 귀국하다>는 분포가 희박하다. 특히 전남 함평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 11) <중원황제가 학사를 보내다>와 화소 12) <시문 경합 후 패배하여 학사 귀국하다>의 부분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특이한 것이라 할 만한 것이다. 아마 이것은 다른 시문 경쟁 화소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화소 13)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 나승상 딸이 자색과 절행이 있음을 듣고 거짓으로 繕鏡賣라 하며 나승상 댁에 이르러, 그 딸의 거울을 고의로 깨뜨리고 그 댁의 종이 되다>에서 화소 18) <아내를 맞이한 후 시를 지어 중원으로 보내다>까지의 부분은 다시 밀집되어 있으나, 화소 19) <중원의 황제가 그 시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시 지은 사람을 불러들이라 하다>에서 또 분포의 희박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13)부터 18)까지의 내용은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면서 밀집되고 있어 하나의 설화로 향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화소 1)에서 12)까지를 '英雄誕

16) 신형식, 「삼국사기 열전의 분석」, 『한국사논총』 3집, 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학회, 1978.

<표1> 地域別 崔致遠 說話 話素 分布表

자료번호	31	38	30	37	32	33	20	7	11	17	6	3	13	18	21	28	34	29
지역 화소번호	경남 진양	제주 북군	경남 진양	경남 의령	경남 거창	경남 거창	전남 화순	강원 삼척	충남 대덕	전남 승주	강원 삼척	서울 도봉	전북 부안	전남 승주	전남 화순	경북 선산	경남 거창	경북 예천
1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9			○				○											
10			○				○											
11															○	○		
12															○	○		
13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A			○	○	○	○		○								○	○	○
B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20			○		○	○	○				○	○	○		○	○	○	○
21							○										○	○
22																	○	○
23						○					○	○					○	○
24					○						○	○					○	○
25			○	○		○	○		○			○		○	○			
26																	○	○
27		○															○	○
28	○					○		○										○
29	○					○	○						○				○	○
30					○			○					○				○	○
31								○										
32																		
33											○							

生說話'라 명명하기로 하고 두번째 밀집 상태를 보이는 화소 13)에서 18)까지는 서울로 올라온 아이가 거울을 깨뜨린 것을 계기로 나승상의 사위가 되고 있으므로 '破鏡奴婚姻說話'라 명명한다.

최치원의 출생기나 성장기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少精敏好學>이라고만 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설화에서는 오히려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본래부터 민간에서 전승되었음을 확신하게 해 준다. 이에 대해 분포상에서 희박하게 나타나는 화소 19)에서 화소 28)까지의 부분은 탄생기나 성장기의 이야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최치원이 12세에 입당하여 禮部侍郎 裴瓚이 주관하는 과거에 급제하고, 치적이 우등으로 承務郎侍御史內供奉으로 승직되고, 紫金魚帶를 하사받으며 「討黃巢檄文」을 쓰는 등 文名을 떨치고 28세 때에 귀국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부분은 입당 부분과 귀국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그 사이에 몇 개의 삽화가 결합되어 하나의 설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入唐說話'라 명명한다. 분포 지역으로는 경남 거창 일부 지역에서 채록된 점으로 보아, 단독형의 설화가 광포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입당설화가 향유되고 있거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실이 설화화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음은 신이한 종말을 한 終世期이다.¹⁷⁾ 최치원은 귀국 후 진성왕에게 시무책을 올렸으나 진골들의 반발로 거부당하자 그는 조정에서 물러나 은퇴를 하게 된다. 그 연유를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致遠自西事大唐東歸故國 皆遭亂世 屯遼蹇連動輒得咎 自傷不遇 無復仕進意 逍遙自放於出林之下 江海之濱¹⁸⁾

당에서 배운 지식을 마음껏 펼 수 없는 신분적 제약과 당시 신라의 혼란으로 은퇴를 결심하였고, 그 후 慶州 南山, 剛州 氷山(慶北 義城), 狹川 淸涼寺(慶南 狹川), 智異山 雙溪寺, 合浦懸 別墅(昌原 月影臺), 梁山 臨鏡臺, 釜山 海雲臺, 金海 靑龍臺 등으로 逍遊하다가 마지막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母兄 賢俊과 定玄師와 道友를 맺고 살았다¹⁹⁾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저로 화소 29) <최치원이 가야산에 들어가 종적을 모르게 되다>가 생겨나고 그 후 화소 30)

17) 신형식은 앞의 글에서 입당을 중심으로 입당이전, 입당, 귀국 후 입산으로 나누고 있는데 필자는 입산에 해당하는 시기를 終世期라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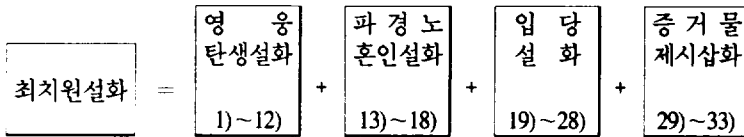
18) 삼국사기 권 제46, 열전 제 6, 최치원전.

19) 위의 책, 같은 곳.

최치원 설화의 형성

<최치원이 꽃아 놓은 지팡이가 아직도 자라고 있다.> 이 외의 몇 개 화소가 첨가, 성장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소 29)와 30)이 들어있는 것을 설화의 유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증거물을 제시하는 삽화로 처리한다.

이상 나타난 대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최치원 설화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²⁰⁾



이 각각의 설화의 분포양상을 간략하게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지역별 설화형 분포

지역 \ 설화형	영웅탄생설화	파경노혼인설화	입당설화	증거물제시삽화
경 남	○	○	○	○
경남 김해 · 경북	○	—	—	○
충북 · 경기	—	○	—	—

인물전설은 어떤 인물에 전승되던 설화의 화소들이 부회되어 인물을 영웅화시키게 마련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물을 설화화 시키는데 꼭 필요한 화소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설화를 분석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소가 원형에 가까운 것이 되며 이런 화소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설화의 발상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지역별 설화형 분포표는 영웅탄생설화, 파경노혼인설화, 증거물 제시삽화가 최치원 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물전설이기에 전설의 필수 요소인 증거물 제시 삽화를 제외한다면 영웅탄생설화와 파경노혼인설화가 최치원 설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충북, 경기에서는

20) 정병욱은 金猪說話, 棄兒說話, 破鏡說話, 入唐說話, 受難說話, 歸國說話로 나누고 있는데 소설에 나타난 근원설화와 설화상에 나타난 說話型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웅탄생설화가 구연되지 않고 파경노혼인설화만 향유되고 있으며, 경남 김해와 경북에서는 파경노혼인설화가 구연되지 않고 영웅탄생설화만 향유되고 있다. 그에 반해 경남은 거의 전 지역이 모든 요소를 향유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인물전설이 향유되고 있을 때 그 인물이 향유층과 관련이 있으면 향유층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인물에 관한 일체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을 수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의 일생담이 향유되는 경남지역은 최고운에 관한 설화의 발상지가 되고 그 이외 지역은 최치원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부분적인 설화만을 향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면 경남에서 전승되는 입당설화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임·병 양난을 거치면서 서민계층의 자아각성과 자신들의 신분상승을 서서히 꾀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지식층에서는 새로운 학문인 실학의 유입과 더불어 자주정신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에 일부 뜻이 있는 양반 귀족층은 역사서를 탐독, 실제인물인 최치원을 등장시키고 역사적 사실을 부여하여 실제적 영웅상을 형상화하려 한 것이다. 증거물제시삽화는 후대인이 그를 전설적 인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첨가한 것이라 생각한다. 최치원 자신이 어려웠던 시대에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려 했던 인물이었기에 설화화될 수 있었고, 소설이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17세기 경의 임·병 양난을 거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민중에 의해 어려운 세파를 헤쳐 나갈 국가적 영웅이 회구되다가, 중국에 대한 독립의식과 반항 정신이 민중으로 하여금 실제인물을 영웅화시켜 회구에의 보상을 이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화의 발상지

최치원에 관한 기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최치원이 어디에서 탄생하여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인물이기에 그는 더욱 설화화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탄생설화와 파경노혼인설화의 전승 지역이 하나는 경북 지역 중심이요, 다른 하나는 충북·경기 지역 중심이다. 반면에 경남 지역에서는 모든 설화가 다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탄생과 성장기의 설화가 달리 전승되는 것은 바로 주인공 최치원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설화 속에 나타나는 최치원의 활동지역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최치원의 탄생지역
2. 나승상매(서울)
3. 입당
4. 신라국

활동지역은 인물의 성장과 관련지어지고, 이는 곧 설화의 발상지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물이 탄생하면 맨 처음 관계를 맺는 곳은 탄생지, 곧 고향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일어난 구체적 사건이나 특정된 장소는 인물이 전설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출생 요소가 없이 설화가 변이될 경우는 민담화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소설 「崔孤雲傳」에 의하면 고운이 홀로 京城에 전입하여 스스로 거울 고치는 일을 하며 나승상매 문 앞까지 이른다. 경성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이르는 것이므로 어딘가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탄생지의 설화를 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최치원 탄생설화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경남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설화에서 탄생과 관련되는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최치원은 부친이 어느 곳에 부임했다가 그를 낳았는데 기이한 탄생 결과 어떤 곳에 버려지게 된다. 이 부친의 부임지와 기아 장소가 설화 각편마다 달리 나타나는데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경남지역 최치원설화에서 부친의 부임지와 기아장소

자료번호	지 역	부임지	기아장소
19	경남 진양군	마산 창령	물가 둑
20	경남 진양군	×	술밭
21	경남 진양군	전라도 순창	가출
22	경남 진양군	×	바다
23	경남 진양군	×	×
24	경남 김해군	마산	돌섬
25	경남 김해군	×	돌섬

위 표에 따르면 전승되는 곳으로 경남 김해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내륙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부친의 부임지는 마산 창령, 창원, 전라도 순창, 마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령(昌寧)은 창령군에 속한 내륙이고 마산이 있는 곳은 창원군(昌源郡)으로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 발음상의 변이로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는데, 버리는 곳을 대비해 보았을 때 내륙에서는 '물가둑'에 버리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며 설화상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면서 전승되기 위해서는 마산 창원에 부임한 셈이 된다.

최치원을 낳고 버리는 곳은 솔밭, 물가둑, 돌섬, 가출, 바다 등으로 나타난다. 김해군을 제외한 지역은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은 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돌섬(猪島)인데 마산 앞바다에 실재하고 있어 설화상 합리성을 갖는다.

이런 사실로 보아 추정하면 치원의 부친은 창원군으로 부임해 가서 치원을 낳자 저도에 버렸다는 셈이 되며 이 지역에서 탄생설화는 싹트기 시작한 것이 된다. 즉 탄생설화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탄생설화는 경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파경노혼인설화와의 상관성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파경노혼인설화는 성장기 설화이다. 즉 유년기는 탄생설화요, 성장기는 파경노혼인설화인 셈이다. 최치원은 경남의 바닷가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여 상경하여 승상의 딸과 결혼하고 중국에서 보내온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벼슬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남 지역에서 성장한 최치원의 탄생설화가 경남 이외 지역에서는 어떤 변이를 나타내는지 역시 부친의 부임지와 기아 장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부임지와 기아장소를 보면 경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아주 다르다. 경남지역에서는 고운의 부친의 부임지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확실한 지명이 등장하여 전설로서의 믿음성이 두드러졌는데 여기서는 '어느 고을 원'으로 나타나며 고운을 버리는 기아 장소도 경남 지방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일정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버리는 곳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설화가 발생한 지역의 전승자들은 설화의 모든 것을 수용하려 한다. 우선은 진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설화 발생 지역이라 추정되는 경남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라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신비스러운 탄생 이외의 사건에는 관심이 두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운의 부친이 부임지가

<표4> 경북 및 기타 지역에서 致遠父의 부임지와 기아장소

자료번호	지역	부임지	기아장소
3	서울 도봉구	어느 고을	강변 바위
6	강원 삼척군	강원도 함흥 영흥골마을	강변
8	강원 양양군	×	×
11	충남 대덕군	고을 원	들(야외)
13	전북 부안군	어느 고을	산
14	전북 정읍군	문창	바위
20	전남 화순군	×	×
21	전남 화순군	경주고을 원	×
17	전남 승주군	×	개펄
18	전남 승주군	×	모래밭
14	경북 월성군	×	숲속
15	경북 월성군	×	×
28	경북 선산군	문창고을	해변가
17	경북 성주군	×	×
18	경북 영덕군	함경도 어느 고을	×

‘어느 고을’이라고 하여 막연하게 나타나고, 기아 장소도 ‘들’이니 ‘숲속’이니 하여 지역성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운의 탄생에 관한 영웅탄생설화는 경남지방의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경북 및 기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남 지역과 가까운 전남에는 전혀 최치원 설화의 분포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지리적 현상으로 보인다. 경남과 전남은 소백산맥과 광주산맥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라, 충청 지역은 백제문화권으로 신라 문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지역적 성격의 차이로 신라인 최치원에게 별 관심이 없었기에 전파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인물전설을 발생시켜 향유하는 지역에서의 향유층은 구전되는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전설은 그 향유지역의 영웅전설로 남는 이유이기도 하며, 경남지역에서 탄생설화 뿐만 아니라 파경노흔인설화, 입당설화, 증거물 제시삼화를 향유하는 이유는 최치원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여 그를 지역적인 영웅으로 형상화시키면서, 향유층의 영웅회구에 대한 바람을 고운을 통해서 투영, 해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최치원은 경남지역의 지역적 영웅으로서 그에 관한 일체의 설화가 탄생설화가 향유되는 지역을 중심해서 수용되고 있고, 특히 영웅으로 형상화되어 구전되면서 전설화된 것이라 하겠다.

5. 원형설화

최치원설화는 경남지역에서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대 전승되었음을 앞에서 살폈다. 최치원 설화를 구성하는 것은 영웅탄생설화, 파경노혼인설화, 입당설화, 증거물 제시삽화였는데 이 설화들이 최치원의 이야기를 형성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최치원과 상관 없이 민간에 전승되던 여러 설화들이 최치원의 史實과 어울려 수용되면서 최치원 설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할 때 최치원 설화를 구성하는 원형설화²¹⁾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인물을 설화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최치원 설화를 구성하는 조상설화를 밝힘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인물 전설은 여러가지 화소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최치원처럼 인물을 영웅화시키는 경우 어떤 설화들을 수용하여 새롭게 설화를 만들어가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전승자들의 창작이므로 전승자들의 인물전설에 대한 수용의식의 추출도 가능하다.

이 작업에 앞서 먼저 소설 최고운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 최고운전²²⁾은 여러 유형의 설화가 삽화로 구성되어 형성된 작품임은 이미 알려져 있다. 정병욱은 최문헌전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 작품은 “십여개의 독립된 설화들이 한데 엉기어 하나의 소설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그 삽입 설화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²³⁾

21) 이를 최래옥은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pp.24~25에서 조상설화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그는 설화는 최초의 原型說話에서 전승되면서 변이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찾아 복원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설화의 유동성을 생각한다면 복원으로 고착시킬 것이 아니라, 그 복원된 설화로부터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는 과정중의 변이에 주목하고, 그 변이의 양상과 원인과 의미와 방향을 고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 복원된 설화를 조상설화라 하였다. 때문에 조상설화는 여럿 있게 되는데 그 중 최초로 발생한 조상설화를 原型(최래옥, 위의 책, p.181)이라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가장 첫 조상이 되는 설화라는 의미로 原型說話라 하기로 한다.

22) 최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은 현재까지 20여종의 이본이 있다. 이 중 상당수의 것이 崔孤雲傳으로 전하므로 이 명칭을 쓰기로 한다.

23) 鄭炳昱, 「崔文獻傳 紹介」, 白樂濬博士 華甲紀念國學論叢, 1955, pp.814-817.

1. 金猪說話(誕生說話)
2. 棄兒說話(幼年時代) ① 棄兒說話 ② 較文說話 ③ 贈謎說話
3. 破鏡說話(思春期)
4. 入唐說話 ① 龍宮赴宴說話 ② 魏耳島洒雨說話 ③ 遇神人說話
5. 受難說話(留唐時代) ① 入宮說話 ② 謫貶說話
6. 歸國說話

또 김현룡은 최고운전이 태평광기 소재 설화에서 영향을 받아 중요 소재를 차용한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삽입 설화를 정리하였다.²⁴⁾

1. 猛獸奪妻 2. 射覆과 擇婿 3. 使龍降雨 4. 孤島仙遊 5. 皇帝를 屈伏시키는 說話

이들 설화들은 최고운전의 내용 분석에서 추출된 가상의 설화일 뿐, 실제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최치원 설화를 밀받침으로 하여 귀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 향유되는 최치원 설화에는 위의 것들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살폈듯이 실제로 향유되는 최치원 설화에서는 4개의 설화 즉 영웅탄생설화, 파경노흔인설화, 입당설화, 증거물제시삽화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탄생기를 주로 향유하느냐, 또는 성장기를 주로 향유하느냐에 따라 설화 유형이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 각각의 설화들은 어떤 종류의 삽화나 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1) 영웅탄생설화

앞에서 논의한 결과에 의하면 최치원 설화는 탄생과 유년기를 함께 설명하는 영웅탄생설화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3개의 挿話로 이루어져 있다.

1. 금저탄생삽화, 2. 기아삽화, 3. 천너보호삽화

24)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6, pp.318-328.

첫째, 금지탄생삼화는 인물 최치원의 출생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최치원에 관련된 설화로는 출생에 얽힌 전설과 그가 신선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는데 먼저 출생에 얽힌 전설부터 살펴 나가기로 한다. 신선에 얽힌 설화는 증거물제시삼화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최상수에 의해 수집된 출생에 얽힌 전설²⁵⁾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 신라 때에 어느 고을 사또가 부임하면 그날 밤에 사또의 아내가 행방불명되는 괴변이 있었다.
- b) 그 지방 사또로 갈 사람을 널리 모집하니 한 지원자가 나타나 부인과 함께 입지에 부임하다.
- c) 사또가 부임한 날, 명주실을 구하여 아내의 치마자락에 매어놓다.
- d) 밤이 이슬하여 괴이한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고 아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 e) 이튿날 사또가 명주실을 따라서 뒷산 바위 속 굴에 이르다.
- f) 사또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다.
- g) 아내가 도적(괴물)의 정체는 돼지이며, 지금 사냥을 나가 없다고 알려주다.
- h) 마침 도적이 돌아와서 사또가 칼을 빼어 내리쳐 죽이니 늙은 금빛 돼지였다.
- i) 아내를 데리고 온 지 열달 후에 아기를 낳다.
- j) 사또가 관속을 시켜 아기를 강물에 띄워 보내라 하였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길가에 버리다.
- k) 어느 고을 노파가 그 아기를 주워다 길렀는데 뒤에 훌륭한 인물이 되다.
- l) 이 아기가 곧 경주 최씨의 시조요, 신라의 대문호인 최치원 선생이다. 그래서 경주 최씨는 금돼지의 자손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全羅北道 沃溝群 古群島 傳說²⁶⁾
2. 平安南道 鐵山群 站面 日新洞 東巖岩山 洞窟 傳說²⁷⁾
3. 慶尙北道 慶州市 傳說²⁸⁾

위의 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전설이 강원도 금화군 금성면에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p.138~140.

26) 최상수, 앞의 책, p.140. 附記

27) 박영준, 『한국의 전설 3』,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pp.149~153.

28) 한국문화회방송주식회사편, 『전설따라 삼천리』, 동아문화원, 1966, pp. 251~256.

- 가) 옛날 강원 금화군 금성면 뒷산에 금돼지 한 마리가 살았는데 변화가 무궁하고 행패가 심하였다.
- 나) 고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곳 원이 금돼지를 잡으려고 결심하다.
- 다) 이것을 안 금돼지가 원 내외를 감쪽같이 굴 속으로 잡아다 놓고 날마다 일을 시키다.
- 라) 어느 날 금돼지가 원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물으니 원은 '떡'이라고 대답하고, 금돼지는 제일 무서운 것이 '사슴가죽'이라고 하다.
- 마) 금돼지가 원 앞에 떡을 놓고 돌로 굴 입구를 막고 나가다.
- 바) 원이 떡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곰곰이 도망할 궁리를 하다.
- 사) 원은 열쇠 끈이 사슴가죽임을 깨닫다.
- 아) 원이 열쇠 끈을 보이며 금돼지를 죽이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와서 잘 살다.
- 자) 수개월 후에 원의 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부정하다고 하며 자결하려다가 원의 만류로 돌이키다.
- 차)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다.²⁹⁾

이 전설과 유사한 것으로는 부산 동래 근처의 <彌勒돼지 이야기>³⁰⁾가 있는데 금돼지가 무서워하는 것이 사슴가죽이 아닌 양 혹은 양털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이상 두 가지 설화는 내용이 서로 비슷하며 화소도 서로 동일하다. 다만 앞의 것은 金猪誕生한 아이가 최치원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뒤의 경우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만 설명하여 구체적인 인물 명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유사는 뒤의 설화가 앞의 설화의 변이에서 온 것인지, 앞의 설화가 뒤의 설화의 변이에서 온 것인지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금저탄생삼화가 반드시 최치원의 탄생화소로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현재 다른 영웅적 인물의 탄생화소로서 금저탄생삼화를 여러 편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설화의 성격상 다른 영웅적 인물의 탄생삼화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삼화의 화소인 '명주실을 따라 부인의 행방을 찾는 일', '금돼지를 굴 속으로 들어가 퇴치하는 일' 등은 아래자형 설화에서 명주실을 따라 아래자를 찾는 것과 같고, 지하국대적제치설화 중 굴 속의 세계에서 대적을 제치하는 것과 같은 점이다. 굴 속에서 금돼지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29) 최상수, 앞의 책, pp.426~428.

박영준, 앞의 책, pp.308~312 사), 아)는 박영준 편에만 있고, 원이 먼저 잡혀 온 것으로 되어 있다.

30) 손진태, 「한국민간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7, pp.110~111.

이들 설화 화소의 수용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금저탄생 이야기도 다른 영웅탄생설화의 신이성을 나타내는 화소를 수용하여 전승했을 가능성이 짙다.

둘째, 기아삽화는 최치원의 출생설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영웅신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삽화이다. 주몽의 탄생신화에서 유화가 알을 낳자,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불길한 일이라 하여 버렸는데 그 알 속에서 주몽이 태어났다는 이야기³¹⁾와 유사한 것이다. 많은 예를 들 필요 없이 고대영웅신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소를 수용, 변형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천녀보호삽화이다. 이것 역시 영웅신화에 나타나는 화소이다. 위에 든 주몽탄생신화에서 유화가 낳은 알을 버렸더니 개·돼지가 보호하고, 다시 길에 버렸더니 마소들이 보호하고, 들판에 버렸더니 새·짐승들이 보호해 주어 주몽이 탄생하는 것과 유사한 화소이다. 이 화소도 역시 고대 영웅신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소를 수용, 변형시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최치원 탄생설화는 영웅의 이상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적 영웅의 탄생설화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상이 설화화소³²⁾ 7)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명인데, 유년기에 해당하는 화소 11)(중원 황제가 학사를 보내다) 화소 12)(시문 경합 후 패배하여 학사 귀국하다)인 較文挿話가 과연 어떻게 탄생설화의 소재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설화는 정병욱이 교문설화라 명명하여 소설의 근원설화로 취급하고 있지만 최치원의 영웅탄생설화를 구성하는 원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증거로는 설화상에 나타나는 시문경쟁이 <표1>을 참조할 때 전남 함평과 서울 도봉에서만 최치원과 중국문장의 시짓기 경쟁으로 나타나고 실제 최치원의 탄생을 설명하는 설화에서는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치원이 중국에서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고 있던 한문 시구가 최치원 일화에 수용되어 향유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시구는 민간에서 <四喜>³³⁾라는 제목으로 향유되는 전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형인데, 내용은 최치원이 중국 文才와 시짓기 내기를 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四喜라는 설화는 최치원 설화가 아닌 다른 설화에서 문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중국 문재와 시짓기 내기를

31) 『三國遺事』 卷 第一, 高句麗 條.

32) <표1> 참조

33) 최치원이 중국문장과 과거를 치르는데 「四喜」라는 제목이 주어져 최치원이 중국 文才보다 더 나은 시를 지어 장원으로 뽑혔다는 이야기. 백운소설에서는 이 이야기가 정지상과 김부식의 시문경쟁 이야기로 나온다.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최치원에 얽힌 단독설화가 아님은 명백하다.

실제 구전설화에는 최치원에 관한 시문경쟁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민담에서 <떡보와 중국사신>이란 제목으로 詩才를 겨루는 내용의 시문경쟁설화가 전승되는 것은 원래부터 최치원의 조상설화로서 較文설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문설화는 최치원의 영웅탄생설화의 소재가 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유행하던 시문경쟁설화가 문장이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최치원의 것으로 수용되어 향유되기 시작한 것이라 보인다.

2) 破鏡奴婚姻說話

이 설화의 소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韓國口碑文學大系』에 수록된 설화와 『최고운전』을 비교해 볼 때 서울로 상경한 孤雲이 승상댁에 머무는 과정에서의 화소가 설화와 소설에서 차이가 있다. 소설에서는 중국에서 석함에 물건을 담아 보내며 속에 든 것을 알아맞히는 시를 지어 보내도록 한 후 아이가 승상댁에 머물게 되나, 설화에서는 도치되어 아이가 승상댁에 먼저 머물고 난 후 중국에서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 맞히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바뀌는 화소들은 설화와 소설을 구별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설화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주요 패턴이다. 반면에 소설은 입체적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를 무시할 수 있다. 사건이 먼저 제시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뒤에 나타날 것을 미리 예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설화상의 인물 최치원은 승상댁에 먼저 머물고 난 후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설화는 최치원의 성장기에 해당하지만 실제 그의 전기를 기록한 『三國史記』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설화 중에는 '파경노'³⁴⁾ 이야기라 하여 인물 최치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한 민담으로서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독립적인 설화 소재가 최치원의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수용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34) 『韓國口碑文學大系』 9-1, pp.75-85. 안용인 구술.

일반 민담에서도 노복이나 머슴이 주인댁 딸과 결혼하는 로맨스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사실은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

3) 入唐說話

<표1>에서 나타났듯이 입당설화는 경남 거창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아 다른 설화처럼 단독 설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설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입당설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설화는 入唐挿話, 遇神人挿話, 受難挿話, 謫居挿話, 歸國挿話로 나뉜다. 화소 19) (중원의 황제가 그 시를 보고 경탄, 시기하여 시 지은 사람을 불러 들이라 하다)와 화소 20) (신라 왕께 알현한 후 자칭 신라문장 최치원이라 하며 중원을 향하여 발행하다)의 입당삽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저로 한 것이요, 화소 21) (비를 내리게 하다)와 화소 22) (신인들로부터 장차 닥칠 화와 그 대응책을 듣다)의 우신인삽화, 화소 23) (황제가 최치원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유인하다)와 화소 24) (최치원이 꾀와 부서로써 무사히 황제 앞에 이르다)의 수난삽화, 화소 26) (중원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가다)와 화소 27) (황제가 다시 최치원을 부르다)의 적거삽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는 허구적 이야기이다.

삼국사기에는 12세에 입당하여 18세에 귀국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신인삽화와 수난삽화 및 적거삽화를 제외한 입당삽화와 귀국삽화는 역사적 기록의 설화화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설화화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당설화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성장기를 나타내는 파경노혼인설화와 같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에 나타날 증거물제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최치원의 일대기를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설에서는 소국의 사신인 최치원이 중원 황제를 꾸짖는다는 대목이 가장 신이 나고 후련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이 설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崔孤雲傳」이라는 기록문학의 영향으로 설화가 형성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상에서 입당설화는 우신인삽화와 수난삽화, 적거삽화를 포함하여 거창지역에서 향유되던 지역적 설화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설에서 나타나는 留唐期에 해당하는 화소 25) (최치원이 장원에 급제하여 벼슬하다)가 문제인데 이것 역시 화소 25)가 설화에 나타날 경우에는 귀국삼화 또는 증거물제시삼화가 없다. 즉 설화에서 화소 25)는 전설의 일면을 남기는 것으로 증거물제시화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탄생기나 성장기를 거쳐 그 결과 중국에서 큰 벼슬을 하였다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증거물제시화소이며 전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왔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 귀국삼화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생겨난 화소로서 입당설화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입당 후 많은 수난을 당하면서도 극복하고 드디어는 귀국했기 때문에 향유자들은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귀국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되므로 전설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래서 귀국삼화는 입당했다가 귀국한 후까지의 입당설화 부분에 포함시켜 문제가 없겠다.

4) 證據物提示挿話

삼국사기에 따르면 <最後帶家隱伽倻山海印寺>라 하여 그의 晩年을 설명하고 있으나 소설에서는 <入山後不知所終>이라 하여 신선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로 증거물을 제시하는 예는 상당히 많다.³⁵⁾

- a) 가야산 해인사에는 그가 식수한 槐가 있고 쌍계사에도 손수 심은 老槐가 있었다고 하며, 紅流洞 大寂光殿 옆에는 학사대라고 하는 큰 반석이 있고 一柱門 안 우측에는 천년 老槐의 잔해가 남아 있는데 그 고목은 開山 당시에 고운이 식수한 것이라고 한다.
- b) 해인사에 가면 최치원이 짚던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거목이 되었다고 한다.
- c) 致遠在海印 一朝早起出戶 遺冠履林間 不知所之 寺僧 以其薦冥禧 爲常寫眞 留讀書堂 堂地在寺西 世傳仙去³⁶⁾
- d) 讀書堂 世傳 崔致遠隱伽倻山 一朝早起出戶 遺冠履於林間 不知所歸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최치원이 식수한 지팡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이 나무

35) 조동일, 「전설의 형성과 의미」, 『관악어문학 제3집』에서 재인용.

36) 海東異積, 「補崔致遠」, 『韓國文獻說話全集』 6, 동국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1, pp.412-413.

가 죽으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 하여 신선이 됨을 은근히 암시하는 반면 최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팡이가 살아 남는다'와 같은 이야기는 최치원 뿐만 아니라 나옹전설³⁷⁾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런 화소를 가진 설화가 다른 데서 향유되던 것이 최치원에게 수용되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설화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에서 믿음과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證示 部分이기에 삽화로 처리한다.

이상에서 논급한 최치원 설화의 조상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삽화의 결합체가 된다.

가. 영웅탄생설화 : 금저탄생삽화 1-6 + 기아삽화 6 - 천녀보호삽화 7

나. 파경노혼인설화 : 파경노혼인설화 13-18

다. 입당설화 : 입당삽화 19-20 + 우신인삽화 21-22 + 수난삽화 23-24 + 적거삽화 26-27 + 귀국삽화 28

라. 증거물제시삽화 : 증거물제시삽화 25, 29-34

이들 삽화 중 입당삽화, 귀국삽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그 외의 삽화들은 모두 고운과 관계 없는 민간설화에서 차용하여 최치원의 설화로 수용, 형성된 것이다.

6. 마무리

이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최치원 설화의 분포양상을 살핌으로써 설화의 발상지를 추정하고 전파되었음을 살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 최치원은 신라 말기 사람으로 당에서 배운 학식과 경륜을 펴보려 했으나 진골계층의 반발로 좌절하게 되자 은퇴하여 각지를 배회하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이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난세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므로 후세에 전승자들에 의해 설화적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37)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민족문화총서 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최치원 설화의 형성

둘째, 최치원 설화 중 탄생기 설화가 가장 분명하게 전승되던 곳이 최치원 설화의 발상지였으며 주변 지역에서는 전승자들의 관심 유무에 따라 변이되어 탄생기 설화, 성장기 설화 또는 일생담을 향유하는 것으로 설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최치원 설화는 전기적 유형에 따라 4개의 설화로 구분되며 각각에 수용된 조상설화가 있다. 탄생기의 영웅탄생설화에는 고대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는 요소인 금저, 기아, 천녀보호삽화가, 성장기에는 종과 주인댁 딸과의 로맨스가 등장하는 민담이 수용된 과경노혼인설화가, 입당기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입당·귀국삽화와 허구적 사실의 遇神人·受難·謫居 삽화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終世期の 증거물제시삽화는 믿음과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설의 한 특징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연구 지역이 남한에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자료의 영성함으로 하여 포괄적이지 못한 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자료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중국 사적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雙女墳에 얽힌 ‘崔致遠’ 전설이 『太平通載』에, 『大同韻府群玉』에 ‘仙女紅袋’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설과 필자가 조사한 최치원 설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따라서 최치원 설화와 이 책들에 실린 설화와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 이와 유사한 인물 전설을 소재로 이루어진 고대소설과의 대비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資料>

번호	제 목	지 역	권 수
1	최고운담	서울 도봉구	1-1
2	최고운담	서울 도봉구	1-1
3	최치원담	서울 도봉구	1-1
4	최치원입화	경기 안성군	1-6
5	최치원의 지팡이	경기 강화군	1-7
6	중국이 보낸 수수께끼를 풀 파경노 최치원	강원 삼척군	2-3
7	최치원 선생의 지혜	강원 삼척군	2-3
8	최치원 선생의 탄생담	강원 양양군	2-5
9	최치원이 공부하고 장가든 이야기	충북 단양군	3-3
10	읽어서 재주있던 최치원	충북 단양군	3-3
11	최치원의 출생과 성공	충남 대덕군	4-2
12	최치원과 자마석	충남 보령군	4-4
13	최치원 이야기	전북 부안군	5-3
14	최치원	전북 정읍군	5-5
15	최치원과 중국사신	전남 함평군	6-2
16	금태지의 자손 최고운(1)	전남 승주군	6-4
17	금태지의 자손 최고운(2)	전남 승주군	6-4
18	파경노의 결혼담	전남 승주군	6-4
19	최고운 선생의 기지	전남 해남군	6-5
20	최고운전	전남 화순군	6-9
21	파경노의 지혜	전남 화순군	6-11
22	최고운이야기	경북 월성군	7-1
23	최치원이야기	경북 월성군	7-1
24	고운선생의 짝지름 꽃아 심은 나무	경북 월성군	7-1
25	최고운 선생이 꽃은 가야산 작시	경북 성주군	7-5
26	최고운의 출생	경북 영덕군	7-6
27	최고운 이야기(1)	경북 선산군	7-15
28	최고운 이야기(2)	경북 선산군	7-15
29	지혜로운 최치원 선생	경북 예천군	7-17
30	최고운	경남 진양군	8-3
31	최고운일화	경남 진양군	8-4
32	최고운	경남 거창군	8-5
33	최고운이야기	경남 거창군	8-5
34	최고운선생	경남 거창군	8-6
35	최고운선생전설	경남 김해군	8-9
36	최고운전설	경남 김해군	8-9
37	금태지가 낳고 학이키운 최고운	경남 의령군	8-11
38	파경노	제주 북제주군	9-1

<特輯>

“ 學術調查의 成果와 課題 ”

그 동안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 의해
이루어진 학술조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울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학술조사가 좀 더 알찬 성과를 얻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에서,
이와같은 특집을 마련한다.